

인간을 값있게 하는 소중한 경험들

李康淑

서울대 음대 교수·음악평론가

음악과의 인연

올게 기억이 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다.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에 축음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축음기는, ‘잼마이’라고 했던가, 그런 것이 풀리게 되면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되어 있는 그런 축음기였다. 나의 아버님은 나의 첫 돌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의 일이라고 하니까 생후 얼마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가 될 수 밖에 없다.

내가 어머님 등에 업혀서 깡깡거리고 있었다고 한다. 어머님 말씀이 그러셨다. 어머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는 것은 아니다. 어머님은 아들의 타고난 음악적 소질을 남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과장된 말씀을 하셨을 것이 틀림이 없다. 어머님은 우리집 축음기의 ‘잼마이’가 풀리면 내가 언제나 깡깡거렸다고 하셨다. ‘잼마이’가 풀리게 되면, 나오던 소리의 음정이 죽고, 음악이 시들어가게 된다. 그것을 첫 돌 전에 내 귀가 식별해냈다는 것이다. 내가 어머님 말씀을 믿지 않는 이유는 첫 돌 전에 내가 그랬다는, 바로 그 시기 때문이다. 네 다섯살 정도 난 아이가 그랬다면 또 모를 일이다. 첫 돌 전에 그랬다는 이야기는 정말 믿기지 않는다. 그러나 어머님의 말씀이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의 일이었다고 하니 분명해지는 것이 하나 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은 나의 첫 돌 전이었으니까 어머님 말씀이 무조건 거짓말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시기는 첫 돌 전이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고, 다만 깡깡거리 이유가 어머님 생각대로가 아니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 돌 전의 어린이가 소리를 듣고 음악이 시들어가고 있는 것을 식별해냈다면 그것은 정말 타고난 귀를 가졌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나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다. 국민학교에 다닐 때부터 학교에서 노래 잘하는 학생으로 통했었고, 이 노래 잘함 때문에 결국 나는 음악을 전공하게 됐다. 부모님들이 이 노래 잘함 때문에 남자가 음악을 지망하게 됐다면서 노래 잘함을

무척이나 원망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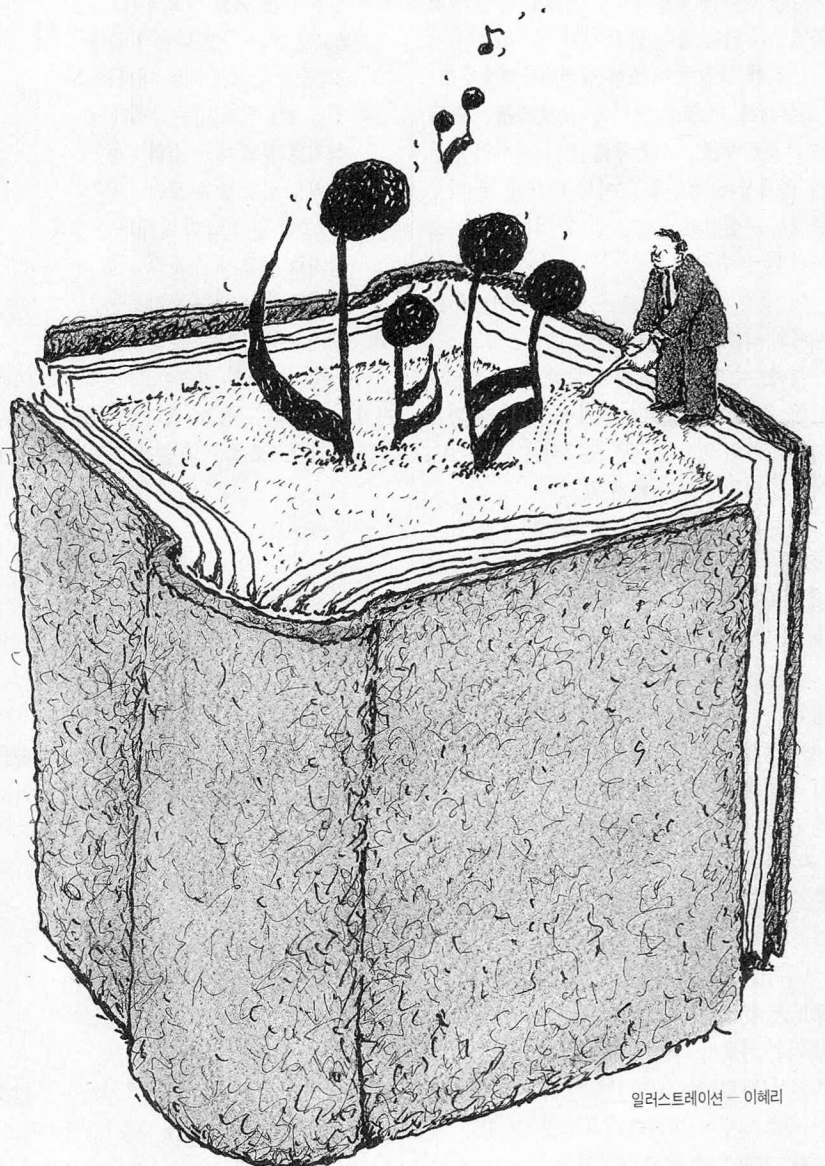
그림은 ‘눈’으로 보는 것이고, 음악은 ‘귀’로 듣는 것이다. 내겐 눈보다 귀가 훨씬 더 중요했다. 신체적으로 눈과 귀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나의 귀는 음악의 의미를 들을 수 있었는데, 나의 눈은 미술의 의미를 볼 수 없었다는 것 뿐이다. 그림의 ‘봄’과 음악의 ‘들음’은 신체적 시력과 청력과는 상관이 없다. 보는 법과 듣는 법을 익힌 눈이나 귀일 때, 오관 구실을 할 수 있게 된다. 예술세계가 요구하는 눈이나 귀가 신체적 귀가 아닌 이유를 나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설명해 보려고 했다. 그러나 백퍼센트 성공하기란 언제나 쉽지 않았다.

내 귀는 어릴 때부터 나에게 ‘생각’을 ‘느낌’으로 하게 했다. 음악을 들으면서 나는 분명히 어떤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언제나 개념을 운반하는 사고내용과는 상관이 없었다. 분명하긴 하나 비개념 관련적 느낌과 상관되기만 했다. 그러나 나는 음악을 들을 때 마다 한없이 행복했었다. 어렸을 때 나에게 있어서의 음악은 베토벤과 슈베르트였다. 물론 쇼팽과 브람스 그리고 바하 같은 작곡가의 작품 역시 내 인생을 위해서 아주 소중한 것이었다.

문학에서 발견한 ‘참세계’

사람은 삶의 방식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귀만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보겠다고 다짐했던 나에게 의외의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결핵으로 신체적 불편함을 겪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고 만 것이다. 나는 그 날로 학교도 그만두고, 하던 피아노도 그만두고, 집이 있는 시골로 내려가야만 할 신세가 된다.

시골집에서 문학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꿈엔들 알았으랴. 나를 위한 이 기다림이 나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된다. 병석에 누워서 하는 일이라고는 어쩌다 음악 듣는 일 이외에는 책을 보는 일 뿐이었다. 매형이 근무하던 시골 중학교의 조그마한 도서관에 있는, 책이라고 하는 책은 전부 읽을 기회를 가지게 된다. 헷세의 ‘데미안’, 지드의 ‘좁은 문’, 또스토예프스키의 ‘죄와



일러스트레이션 - 이혜리

벌’식으로 시골 도서관이면 으레 세계명작 대우를 받는 책들을 갖고 있게 마련인데, 나는 그것들부터 읽었다. 「삼국지」 「수호지」라든가 「옥루몽」 등도 읽었다. 읽은 책을 일일이 여기서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거짓없이 매형 학교에 중학생을 위해 마련해 둔 책은 거의 전부 읽었다.

나는 귀가 마련할 수는 도저히 없는 세계를 눈이 마련하는구나, 음악의 세계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넓고 깊은, 차라리 음악보다는 훨씬 더 인간적인 ‘참 세계’를 책이라는 것이 마련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나는 그 사실의 발견에 무한히 감동했다. 그래서 좀 과장해서 말을 한다면 나는 읽고 또 읽었다.

나는 드디어 시인 혹은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습작을 시작한다. 그러나 한번도 성공해본 일은 없다. 내게 있는 귀는, 듣는 법을 쉽게 터득시키는 모양인데, 내 눈은 글쭙 수 있는

법을 쉽게 터득시키지 않는다.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긴 이야기를 짧게 한다면 이렇게 된다. 글쓰는 법을 끝끝내 터득하지 못하고 나는 무척이나 괴로워하면서 마침내 내 ‘귀’에 다시 의지하기로 하고 음악대학을 졸업한다. 음악과 나의 삶은 깊게 연관되고 마는 것이다.

묘하다. 지금의 나의 삶은 ‘음악글’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으로 바뀌어 버렸다. 음악평론을 한답시고 여기저기 글을 써야 하고, 음악학을 한답시고 책을 만들어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전부가 글쓰는 일과 상관이 되고 말았다. 쓰고 싶던 소설이나 시는 아직 쓰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귀에만 의지하던 나의 어린 시절의 꿈을 액면 그대로 성취시켰다는 것도 아니다. 귀로 듣는 것, 귀로 생각한 것 등을 눈으로 번역하는 작업만을 어설픈게 하고 있다.

귀도 귀이지만 눈이 내게 중요해지자, 내겐 그때부터 책 사모르는 버릇이 생기기

나는 귀가 마련할 수 없는 세계를

눈이 마련하는구나,

음악의 세계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넓고 깊은,

차라리 음악보다는 훨씬 더 인간적인

'참 세계'를 책이라는 것이 마련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나는 그 사실의 발견에 무한히 감동했다.

그래서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나는 읽고 또 읽었다.

시작했다. 보지도 않을 책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책만 보면 무조건 사고 싶어졌다. 물론 대부분이 음악책이다. 귀나 눈이나 간에 그것을 통해서 어떤 느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나는 쉽게 감동한다. 이 감동되는 순간을 나는 소중히 여긴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마음에 기쁨이 끼어서 그런지 근간에는 감동의 순간을 읽고 산다. 감동의 연속이 없는 삶은 살아있는 삶이라고 보기가 싫다.

지금 생각해 보면 눈이나 귀나 간에 모두가 생각과 느낌을 가능케 해주는 통로인 것이 사실이 아닌가. 음악을 통해서도 느끼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느끼고, 글을 통해서도 느끼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옛날에는 미처 몰랐던 것이다.

눈예술과 귀예술

나에게 있어서 음악의 의미가 서서히 바뀐다. 그것은 귀 때문이 아니다. 눈이 마련한 사고의 기회 때문이다. 베토벤이나 슈베르트 등만이 나에게 음악이었던 것이, 쉰베르크나 존 케이지 등도 음악이 된다. 음악이 된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끝낸다고 보자. 아주 아주 귀한 음악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우리의 전통음악 문화를 귀하게 생각하게 되기도 한다. 그래서 '그냥 종교'는

하나만 가져야 할지 모르지만, '음악종교'는 여럿을 가져도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베토벤 종교, 바하 종교, 브람스 종교 뿐만 아니라, 쉰베르크 종교, 케이지 종교, 전통종교, 현대종교, 한국음악종교 등, 음악의 세계에서는 많은 종교를 가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귀로 자기 취향에 맞는 음악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슴으로 그 음악에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세계관을 달리 가짐으로써 생길 수 있는 서로 다른 음악관의 덕분으로 나타난, 역사상 그 가치가 인정되고 있는 수많은 '음악글'을 눈으로 읽고 그 읽은 내용을 머리로 냉철히 생각해 보면 될 일이다.

사람들은 흔히 시각예술과 청각예술 식으로 예술을 구별한다. 눈예술과 귀예술이 있다는 뜻이겠다. 그러나 귀와 눈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그들은 함께 붙어다닌다. 음악은 귀로 듣는다고 하지만, 그것을 태어나게 한 사람에겐 귀와 눈이 같이 산 덕분으로 생기게 된 '인간'이라는 것이 밑바탕에서 깊게 작용한다. 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 글이라고는 하지만, 그 글 속에는 가슴을 울리게 하는, 음악이 귀를 빌려서 울리는 그러한 울림이 있어도 많이 있다. 다만 사람에 따라 어느 감각이 무엇을 먼저 경험하느냐가 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인지는도 모를 일이지만 말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단일 인간이 '책'이라는 것이 마련하는 의미를 먼저 경험하는 경우에는 그 경험의 의미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의미보다도 더 보람있고 우리 인간을 값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는 것이다.

책이든 음악이든 음악글이든 간에 모두가 인간의 귀와 눈 모두를 소중히 한다. 다만 소중함에 도달하는 길이 상호의존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뿐이다.

책의 세계

신토피콘 한 고전전집의 놀라운 편집

김호근
프리에디터

신토피콘은 한 주제의 탐구를 위해 여러 책의 여러 측면을 발견하고 종합화하는 독서에 도움을 주는 참고서의 하나다.

모티머 J. 애들러는 독서의 단계를 네 수준으로 구분해서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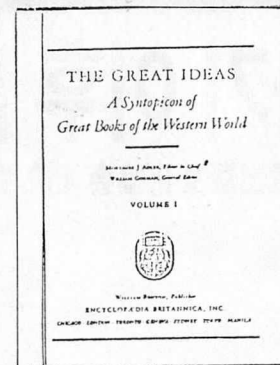
첫째 수준은 초급독서로서, 읽고 쓰기의 훈련이 거의 돼 있지 않은 어린이가 초보적인 읽기와 쓰기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둘째는 어떤 글이 무엇에 대해 씌어졌는지, 혹은 그 전체가 어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지를 파악하는 점검독서, 셋째는 한 책의 내용을 철저히 살피는 분석독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서 이른바 '신토피컬 독서'를 들고 있는데, 이는 독자가 얻고자 하는 임의의 주제를 두고 몇권의 책을 관련시켜 각각의 해당부분을 찾아 읽는 고도로 조직적인 독서법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단계를 거치며 독서의 수준은 계속 축적, 상승되는데, 복잡한 주제나 추상적 사고, 혹은 사상을 다룬 책들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독서의 수준이 신토피컬 독서법에 이르러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한다.

신토피컬 독서란 어떤 한 책의 견해만 따라가며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 주제(topic)의 탐구를 위해 그에 관련된 여러 책의 여러 측면들을 발견해내고 종합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 독서과정에서는 책의 저자보다 독자가 오히려 능동적인 주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수준의 독서를 하기 위해선 많은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어 어떤 내용이 어느 책에 들어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능력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어떤 주제가 어느 책에 있는지를 제시해 주는 참고서가 필요하게 되는데, '신토피콘'은 그런 참고서의 하나다.

애들러가 편집장으로, 그리고 시카고대학 교수회의가 편집진으로 엔사이클로페디아 브리태니카사에서 펴낸 「서양의 위대한 책」(Great Books of the Western World)은 그리스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양 사상의 저서 443책을 54권으로 묶은 전집이다. 이 전집의 제2, 3권이 신토피콘(The



Great Idea, A Syntopicon)으로서, 이 2권의 신토피콘으로 인해 「서양의 위대한 책」은 생동감 있는 고전전집의 성가를 얻게 되었다. 신토피콘이 편찬되지 않았다면 「서양의 위대한 책」은 그저 훌륭한 책의 단순한 집산에 그쳤을 것이다. 즉, 신토피콘이 편찬됨으로써 「서양의 위대한 책」은 서양 사상의 전맥락을 통해 어떤 주제의 내용상 상호연계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고전이 된 것이다.

「서양의 위대한 책」의 신토피콘은 알파벳순으로 'Angel'에서 'World'에 이르는 102개 항목(term)이 한 장씩으로 구성돼 있다. 각 장에는 해당 항목의 개념과 범위, 관련사항을 다룬 서론이 먼저 기술되고, 이어 'Outline of Topics'를 통해 논의될 주제들이 차례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여기서 제시된 순서에 따라 각 주제들이 전집의 어느 책, 몇 페이지에 언급돼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수많은 지면색인이 있다. 아울러 각 주제들의 횡적인 상호관련을 파악할 수 있는 색인(Cross References)도 따로 두고 있고, 전집에 수록되지 않은 약 2600권에 달하는 책들의 목록도 각 장별로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색인돼 있다.

한 예를 들어 '용기'(Courage)를 펴보면, 서론에 이어 ① 용기의 본질 ② 용기와 반대되는 악덕 ③ 용기있는 정열 ④ 다른 덕과 용기와의 관련 및 비교 ⑤ 용기의 동기 ⑥ 용기있는 사람의 형성 ⑦ 용기의 정치·사회적 의미 등으로 용기의 주제를 나누고, 그 각각에 대해 언급한 저서들의 지면을 색인해 놓았다. 따라서, 이들 중의 한 주제에 대해 색인대로 찾아 읽어가면, 독자는 그리스 이래 현대까지의 다양한 견해를 역사적으로 재구성해 볼 수 있게 된다. 마치, 그 주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한편의 책을 읽는 것과 같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신토피콘의 편찬이 얼마나 어렵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인가는 물론 두말할 나위가 없다. 모든 저자의 모든 저술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밑받침되어, 각각의 아이디어에 대한 명료한 주제 구분과 그 구분에 따른 내용 파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신토피콘의 편찬은 많은 전문가들의 공동작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